

무등야구장 입점 편의점 현금영수증 발급 꺼린다

“금액적다” “바쁘다” 핑계...이용객 불만

최근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선전과 함께 구름관중이 몰리고 있지만 무등야구장에서 영업중인 편의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려 이용객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관람객 강모(30·남구 노대동)씨는 최근 무등야구장 편의점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강씨는 이날 이 편의점에서 2만5000원 상당의 맥주·김밥·육포 등을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강씨는 광주 국제청에 찾아가 직접 현금영수증 처리 신청을 하라는 조언(?)까지 들었다. 강씨는 “관람객 수가 1만명 이상 찾는 공공장소에 입점한 편의점인데,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는 게 말이냐 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람객 이모(여·34·합평군 월야면)씨도 이날 무등야구장 편의점에서 3만원 상당의 먹을거리를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씨는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아예 묻지도 않는 이 편의점의 행태가 몹시 실망스럽다”고 아쉬워했다.

9일 광주 무등야구장에 따르면 현재 무등야구장 안팎에는 편의점 8곳이 입점해 있다. 하지만, 이들 편의점들은 구입금액이 적거나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꺼리면서 관람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편의점 담당자는 “전국 7개 야구 경기장 중 신용카드기와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갖춘 곳은 우리 밖에 없다”며 “손님들이 줄지어 서 있으면 못해주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어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국세청 콜센터(126) 등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전남북 오늘부터 장마

평년보다 13일 빨라...주말엔 폭우 예상

10일 늦은 오후부터 남해안지방을 중심으로 광주와 전남·북지역에 장마가 시작된다. 이번 장마는 평년(6월 23일)보다 13일 이른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아 10일 차차 흐려져 오후 늦게 남해안 지방부터 비(강수확률 70~90%)

가 내리겠다”고 9일 예보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0일 낮부터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나 밤에는 광주와 전남·북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까지 북상한 장마전선은 11일 늦은 오후부터 남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그칠 것이다.

기상청은 특히 10~11일에는 제

주도와 남해안지방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또 10일 늦은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빨리 북쪽으로 확장돼 이번 장마는 12~13일 이른다”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6·10항쟁 24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자 이한열 열사 24주기인 9일 오후 서울 연세대에서 학생들이 이한열 열사의 영정을 들고 장례식 운구 행렬을 재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故 이한열 열사 24주기 추모식

시교육청-고용정보원 협약
학생 진로·진학지도 강화

1987년 민주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故) 이한열 열사(광주 진흥고졸·당시 연세대 경영학과 재학)의 24주기 추모식이 9일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과 학생 등 150명 가량이 참석해 1987년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인의 뜻을 기리며 헌화와 묵념을 했다.

고인의 어머니 배은심씨는 “이 자리에 와 있으니 87년 생각이 문득 떠올라 숙연하다. 그때 현충일도 연휴라 아들이 잠시 광주에 내려왔는데 딸이 아들 옷에서 ‘최루탄 냄새가 난다’고 하길래 ‘좀 있으면 방학이니까 방학 때 꼭 집에 와서 같이 살자’고 말한 기억이 난다. 그게 아들 얼굴을 본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며 당시를 회고했다.

/양수현기자 yang@·연합뉴스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진로·진학지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시 교육청은 9일 한국고용정보원과 협약을 맺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능력을 고려한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협력 ▲ 직업심리검사, 진로탐색자료 등 진로교육 콘텐츠 활용 협력 등이

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해질 19시 46분

달 뜨는 시간
13시 43분
00시 49분

여름 장마 시작

차차 흐려져 해안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광주	차차흐려져비	19/26℃
목포	차차흐려져비	18/23℃
여수	차차흐려져비	20/23℃
나주	차차흐려져비	18/26℃
완도	차차흐려져비	19/24℃
구례	차차흐려져비	18/26℃
전진	차차흐려져비	19/24℃
해남	차차흐려져비	18/24℃
장흥	차차흐려져비	18/25℃
순천	차차흐려져비	19/25℃
영광	차차흐려져비	19/27℃
진도	차차흐려져비	18/24℃
전주	흐림	18/30℃
군산	흐림	19/27℃
남원	오후한때비	17/29℃
옥산도	차차흐려져비	16/1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블랙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높음	경고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0~2.0m	높음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목포 08:26 01:26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0~2.0m	21:15 14:08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0~2.0m	여수 03:22 09:43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5~2.5m	16:25 22:2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날 씨						
최저/최고	18/25	17/29	18/30	18/29	18/28	18/28

국립공원의 아생화

붉은 자주색꽃...독일선 ‘행운의 열쇠꽃’

〈36〉 큰앵초

큰앵초는 20~40cm정도로 자라는 앵초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넓은 잎 사이로 긴 꽃대가 올라와 붉은 자주색 꽃이 여러 송이 달리는데, 꽃의 크기가 앵초보다 커서 ‘큰앵초’라고 불린다.

독일에는 앵초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병든 어머니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는 성의 열쇠가

앵초라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앵초를 ‘열쇠꽃’이라고 부르고, ‘행운의 열쇠’라는 꽃말을 붙였다. 〈백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파장〉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종로5가역 4번출입구 1층(지하철 1호선)

문의전화 : 02)765-9940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옆)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찾아오시는 길

순대화로

종로

청계천하

1층 국제보청기

종로5가역 4번출입구 동대문시장

무안 갯벌 낙지

MUAN GAETBEOL

게르라늬이 풍부한 청정갯벌에서 서식하는